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3호

2024년 6월

전국 봄 집회를 마치고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8:1-20)	전 준 덕	3
에베소서 읽기(2)	손 현 섭	12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지리라	연 창 호	20
이사야서 공부	최 정 일	25
아람과의 1,2,3차 전쟁과 나봇의 포도원	조 규 철	40
예수전(199)	김 형 철 역	48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 시험	최 제 현	55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66

성서신애사

전국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 집회를 마쳤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분들과 홍성 가족이 1박 2일을 보내며 참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여러 분의 바람대로 풀무고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 주어 홍성으로 장소를 옮긴 뜻도 이루어져 감사하였다.

4월의 신록과 봄꽃,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겨운 홍동의 자연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 푸근하게 해주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정성 가득한 식사도 좋았고, 둘째 날 카페에서의 브런치는 낭만 가득한 식사 시간이었다고 즐거워 해주셨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드렸음에도 철저한 준비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신 열한 분 강사님께 크게 감사드린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일정을 강의로 꽉 채웠더니, 여기저기서 좀 여유롭게 대화할 시간도 주기 바란다는 불멘소리를 들었다. 가을 집회부터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모임은 분명 성서 중심이어야 하나, 오랜만에 만난 신앙의 동지들과 나누는 교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풀무집회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미리 아름다운 꽃으로 강의실을 꾸며주신 분도 있고, 요즘 비싼 사과를 깎아와서 슬쩍 놓아주신 분, 그리고 직접 뜯은 쭉으로 인절미를 만들어 돌아가는 손이 풍성하도록 해주신 언니들. 우리는 그 사랑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특히 최여성 선생님은 병환중인데도 마지막 강의까지 경청하며 본을 보여주셨다.

귀한 시간을 내어 홍성까지 오셨으니, 1박 2일을 온전히 함께 보내면 좋겠다고 많은 분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다. 올 가을집회는 11월 2주 주말(9-10일)이니, 부디 비워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손현섭).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거룩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룩한 복된 소식)

마 28:1-20

전 준 덕

28:1절 : Ὅτε δὲ σαββάτων, τῇ ἐπιφωσκούσῃ εἰς μίαν σαββάτων, ἦλθε Μαριὰ(Μαριὰμ) ἡ Μαγδαληνὴ καὶ ἡ ἄλλη Μαρία θεωρῆσαι τὸ ν τάφον.

사역 : 이제 안식 날이 저물어 가고, 안식 날이 지난 첫날이 밝아오는 즈음에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자 왔습니다.

주) 1. ἐπιφωσκούσῃ : ἐπιφώσκω(ἐπί+φώσκω의 합성동사)(빛을 내다, 날이 밝아오다, 날이 새다, 다가오다, 가까워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여격.

2. ὅτε(부)(시간을 나타낼 때) : (늦은) (소유격 취할 때는) : 저녁에, 날이 저물었을 때, 후에, 다음에)

3. θεωρῆσαι : θεωρ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27:55절 참조)

2절 : καὶ ἰδοὺ, σεισμὸς ἐγένετο μέγας· ἄγγελος γὰρ Κυρίου καταβὰς ἐξ οὐρανοῦ, (καὶ)προσελθὼν ἀπεκύλισεν τὸν λίθον ἀπὸ τῆς θύρας, καὶ ἐκάθητο ἐπάνω αὐτοῦ.

사역 : 그런데 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쪽으로) 다가가서 문에서 돌을 굴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 1. ἀπεκύλισεν : ἀποκυλέω(ἀπό+κυ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굴리다, 굴러내다, 굴러 치우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절 : ἦν δὲ ἡ ἰδέα(εἰδέα) αὐτοῦ ὡς ἀστραπή, καὶ τὸ ἔνδυμα αὐτοῦ
λευκὸν ὥσει(ώς) χιών.

사역 : 그런데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흰 눈과
같이 빛났습니다.

주) 1. ἰδέα : (모습, 모양, 종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수, 주격.

2. λευκόν : λευκός(빛나는, 광채 나는, 흰, 하얀)의 제1, 제2변화 형용
사에 속한 중성,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3. χιών : (눈, 흰눈)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4절 : ἀπὸ δὲ τοῦ φόβου αὐτοῦ ἐσείσθησαν οἱ προῦντες, καὶ ἐγέν
οντο(ἐγενήθησαν) ὥσει(ώς) νεκροί.

사역 :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에 의해 무서워서 떨게 되었으며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주) 1. ἐσείσθησαν : σεῖω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27:51
절 참조).

2. προῦντες : τρ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19:17절 참조).

5절 : Ἀποκριθεὶς δὲ ὁ ἄγγελος εἶπεν ταῖς γυναῖξιν, Μὴ φοβεῖσθε
ὑμεῖς· οἶδα γὰρ ὅτι Ἰησοῦν τὸν ἐσταυρωμένον ζητεῖτε·

사역 : 그러자 천사는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스님을 찾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주) 1. γυναιξίν : γυνή의 복수, 여격(5:28절 참조).

2. φοβεῖσθε : φοβέω(단축동사)의 현재, 중(수), 명령법, 복수, 2인칭(10:26절 참조).

3. ἐσταυρωμένον : σταυρώω(단축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단수, 대격(20:19절 참조).

4. ζητεῖτε : ζητ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2:13절 참조).

6절 : οὐκ ἔστιν ὧδε· ἡγέρθη γὰρ, καθὼς εἶπε, δεῦτε ἴδετε τὸν τόπον ὅπου ἔκειτο ὁ Κύριος.

사역 :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리로 와서 주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주) 1. ἔκειτο : κεῖμαι(눅다, 기대다, 놓여있다, 있다)라는 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법, 단수, 3인칭.

7절 : καὶ ταχὺ πορευθεῖσαι εἶπατε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ὅτι ἡγέρθη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 καὶ ἰδοὺ, προάγει ὑμᾶ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ἐκεῖ αὐτὸν ὄψεσθε. ἰδοὺ, εἶπον ὑμῖν.

사역 : 자 너희는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은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그리고 보라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라이아로 가신다고 해라 거기서 너희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대로이다.

- 주) 1. ταχύ(부) : (빨리, 속히, 곧, 즉시, 당장, 재빨리, 갑자기)
2. πορευθεῖσαι : πορεύομαι의 제1과, 수동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2:8절 참조).
3. προάγει : προάγω(πρό+ἄγω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9절 참조).

8절 : καὶ ἐξελθοῦσαι(ἀπελθοῦσαι) ταχὺ ἀπὸ τοῦ μνημείου μετὰ φόβου καὶ καρᾶς μεγάλης, ἔδραμον ἀπαγγεῖλα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사역 :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품고 무덤에서 빨리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 주려고 뛰어갔습니다.

- 주) 1. ἐξελθοῦσαι : ἐξέρχομαι(ἐκ+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2:6절 참조).
2. ἔδραμον : τρέχω(달리다, 뛰어가다, 빨리 나아가다) 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과 복수, 3인칭(본절은 복수, 3인칭)
3. ἀπαγγεῖλαι : ἀπαγγέλλω(ἀπό+ἀγγέλλω(합성동사 및 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2:8절 참조).

9절: ὥς δὲ ἐπορεύοντο ἀπαγγεῖλα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καὶ ἰδοὺ, ὁ Ἰησοῦς ἀπήντησεν(ὑπήντησεν) αὐταῖς, λέγων, Χαίρετε. Αἱ δὲ προσελθοῦσαι ἐκράτησαν αὐτοῦ τοὺς πόδας, καὶ προσεκύνησαν αὐτῷ.

사역 : 그런데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알려 주려고 막 달려가려고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이예수스님께서 그녀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안녕들 하느냐” 하시자 그녀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발을 짹 붙들고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주) 1. ἐπορεύοντο : πορεύομαι의 미완, 중(수), 직설법, 복수, 3인칭 (2:8절 참조).

2. ἀπήντησεν : ἀπαντάω(ἀπό+ἀντ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만나다, 상봉하다, 대면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 προσελθοῦσαι : προσέρχομαι(πρός+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4:11절 참조).

4. ἐκράτησαν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9:25절 참조).

10절 : τότε λέγει αὐταῖς ὁ Ἰησοῦς, Μὴ φοβεῖσθε· ὑπάγετε, ἀπαγγείλατε τοῖς ἀδελφοῖς μου ἵνα ἀπέλθωσι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καὶ ἐγὼ με ὄψονται.

사역 : 그 때에 (부활하신) 이예수스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라이아로 가라고 전해 주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주) 1. ἀπέλθωσιν : ἀπέρχομαι(ἀπό+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2:22절 참조).

2. καὶ ἐκεῖ(καί+ἐκεῖ의 합성어)(부) :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도 역시, 거기에 또한)

11절 : Πορευομένων δὲ αὐτῶν, ἰδοὺ, τινὲς τῆς κουστωδίας ἐλθόντες

εἰς τὴν πόλιν ἀπήγγειλαν τοῖς ἀρχιερεῦσιν ἅπαντα τὰ γενόμενα.

사역 : 이제 여인들이 가는 사이, 보십시오, 호위병 중 몇 사람이 성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 1. κουστωδίας : κουστωδία의 단수, 소유격(27:65절 참조).

2. ἅπαντα : ἅπας의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24:39절 참조)

12절 : καὶ συναθρόντες μετὰ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συμβούλιόν τε λαβόντες, ἀργύρια ἱκανὰ ἔδωκαν τοῖς στρατιώταις,

사역 : 그래서 저들이 장로들과 함께 회집한 후 계획을 세우고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주) 1. συναθρόντες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2:4절 참조).

2. ἱκανὰ : ἱκανός(넉넉한, 충분한, 상당한, 큰 많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13절 : λέγοντες, Εἶπατε ὅτι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νυκτὸς ἐλθόντες ἔκλεψαν αὐτὸν ἡμῶν κοιμωμένων.

사역 : 말하기를 자네들은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게.

주) 1. ἔκλεψαν : κλέπτω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6:19절 참조).

2. κοιμωμένων : κοιμάω(단축동사)(자다, 잠들다 (수) 깊이 잠들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

14절 : καὶ ἐὰν ἀκουσθῇ τοῦτο ἐπὶ τοῦ ἡγεμόνος, ἡμεῖς πείσομεν αὐτὸν καὶ ὑμᾶς ἀμερίμους ποιήσομεν.

사역 : 그리고 만일 이 소문이 총독에게 들리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설득시켜 자네들을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네.

- 주) 1. ἀκουσθῇ : ἀκούω의 제1과, 수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2:3절 참조).
2. πείσομεν : πείθω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27:20절 참조).
3. ἀμερίμους : ἀμέριμος(ἀ+μέριμος의 합성어)(걱정 없는, 근심 없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여성) 공성어의 복수, 대격(본절은 남성).

15절 : Οἱ δὲ λαβόντες τὰ ἀργύρια ἐποίησαν ὥς ἐδιδάχθησαν. καὶ διεφημίσθη ὁ λόγος οὗτος παρὰ Ἰουδαίοις μέχρι τῆς σήμερον. (ἡμέρας.)

사역 : 그래서 저들은 돈을 받은 다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오늘날까지 이우다িয়া스인들 중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주) 1. ἐδιδάχθησαν : διδάσκω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4:23절 참조).
2. διεφημίσθη : διαφημίζω(διά+φημίζω의 합성동사) (알리다, 선포하다, 널리 알리다, 소문을 퍼뜨리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 μέχρι(부) : (~에게, ~까지, ~에게까지)

16절 : Οἱ δὲ ἑνδεκα μαθηταὶ ἐπορεύθησα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εἰς τὸ ὄρος οὗ ἐτάξατο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사역 : 한편 열 한 제자들은 갈릴리아로 곧 이예수스님께서 자기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으로 갔습니다.

주) 1. ἐτάξατο : τάσσω(두다, 놓다, 임명하다, 세우다, 정돈하다, (2) 명하다, 지정하다, 결정하다, 할당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ἐπορεύθησαν : πορεύομαι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8절 참조).

17절 : καὶ ἰδόντες αὐτὸν προσεκύνησαν αὐτῷ· οἱ δὲ ἐδίστασαν.

사역 : 그리고 저들은 그분을 뵈은 후 스승님께 경배하였으나 몇몇 제자들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주) 1. ἰδόντες : ὁράω(단축동사)의 제2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1:23절 참조).

2. ἐδίστασαν : διστάζω(의심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18절 : καὶ προσελθὼν ὁ Ἰησοῦς ἐλάλησεν αὐτοῖς, λέγων, Ἐδόθη μοι πᾶσα ἐξουσία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τῆς) γῆς.

사역 :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위의 모든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9절 : πορευθέντες οὖν μαθητεύσατε πάντα τὰ ἔθνη, βαπτίζοντες αὐτοὺς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사역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저들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 1. μαθητεύσατε : μαθητεύω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
(13:52절 참조).

2. βαπτίζοντες : βαπτίζω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3:6절
참조).

20절 : διδάσκοντες αὐτοὺς τηρεῖν πάντα ὅσα ἐνετειλάμην ὑμῖν· κ
αὶ ἰδοὺ, ἐγὼ μεθ' ὑμῶν εἰμι πάσας τὰς ἡμέρας ἕως τῆς συντελείας
ς τοῦ αἰῶνος. Ἀμήν.

사역 :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자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 1. ἐνετειλάμην : ἐντέλλομαι(ἐν+τέλλ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단수, 1인칭(15:4절 참조).

2. συντελείας : συντέλεια(σύν+τέλιος의 합성어)의 단수, 소유격과 복
수, 대격(본절은 단수, 소유격(24:3절 참조)

【5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1줄	σταυρώσαντες δὲ αὐτόν,	Σταυρώσαντες δὲ αὐτόν
3쪽13줄	(분깃, 뭇, 제비 뽑아, 얻는 것,	(분깃, 뭇, 제비 뽑아 얻는 것,
8쪽17줄	제2,	제2과,
14쪽23줄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에베소서 읽기(2)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손 현 섭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엡 1:1, 현대인의 성경).

1. 들어가며

에베소서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다. 사실 성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쓴 글들이다. 바울 사도가 이 1절에서 대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 특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다른 에클레시아에도 보내졌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 서신을 전통적으로 “에베소서”로 부르게 된 이유는 원본 편지가 에베소에 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신학자나 지식인에게 연구 교재로 보낸 게 아니다. 평범한 에클레시아 안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다. 즉 한 편의 에세이일 것이다.

그 한 편의 에세이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읽고 또 읽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바랐던 태도를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바란다.

2. 본문 살피기

1) 그리스도인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기록인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다. 당시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였다. 그리고 풍요로웠다. 그곳은 아데미(아르테미스 여신) 신을 섬기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신 숭배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산업이 왕성한 부요한 도시에서 풍요를 누렸고, 아데미 여신에 이어 마술이나 요술도 즐기며 살았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허탄한 신에 사로잡혀 있고,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곳임을 알았을 것이다. 에베소는 과연 주 예수의 복음이 그곳에서 싹이 트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다. 사도 바울 앞으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출선하여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 수가 무려 열두 명이였다. 그들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예비신자의 상태였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였다(행 19:1-7).

이 사람들의 기쁨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주 예수의 복음에 접하였다. 이들이 에베소 에클레시아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에베소에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의 중요한 일터가 되었다.

우리는 복음에 어떤 힘이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오면, 도시는 달라졌다. 우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어서 다른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에베소에서는 게다가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 바울의 옷이나 소지품 만으로도 병을 고치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니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루어졌고, 에클레시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2) 성도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아마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christian)으로 누구를 믿는가에 관한 구별이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믿는 이가 그리스도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성서에 써여 있다. 부처를 믿는 불자라든가 알라를 믿는 무슬림, 이런 정도의 호칭이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 때는 좀 다르다. 당연히 거룩할 췌에 무리 徒로 이루어진 낱말이니,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다.

영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데려가 2년 동안 가르쳤다.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받는 방해와 비판이 거셌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또 ‘성도’에는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다. 죄의 오염에서 정결하다. 시온산을 성산으로 부르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성구(聖具)라 부르는 것과 같다. 즉 흠 없고 순전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산, 다른 물건

과 구별된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가 다 정결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도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다. 성도는 사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

나는 성도인가? 그렇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도’라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나의 70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믿음을 받아 아버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나와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물론 이는 외적으로 본 과정이다.

이를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스러운 사건이다. 그 부모님이 하필 그리스도인이었고, 주의 복음에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나는 이것을 당연히 ‘주의 뜻하심, 주의 부르심’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우연이 아닌 필연, 즉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모두 그럴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을 도덕적으로 완전하여 순결한 상태라 생각하여 자신은 절대 성도가 아니라고 과잉 겸손한 사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 자신을 부르는 말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다.

우리가 성도라 하지만 우리 꼴을 보면 여전히 다를 바 없는 게 사실이다. 하나님 앞으로 옮겨갔다면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절대 불가하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부르신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 보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다. 그분의 의가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보시고 성도라 부르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이다.¹⁾

성도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된 말이다.²⁾ 성도가 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같은 모양이지만, 그 본질이 달라졌다.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다.

에베소 에클레시아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 그래서 말끝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자랑스러워했다. 또 신기한 마술에 빠져 호기심을 충족했던 곳이었다.

이런 에베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것이라고, 또 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리라고 소망을 품었던 바울 사도가 새삼 위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는다.

3)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칼빈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적나라하게 정의한 글을 인용한다.

“우리는 모두 천성적으로 더럽다. 우리에게는 더러움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 성결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패한 사람이요 혐오스러운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1)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2)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의 성결 이외에는 어떤 다른 성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모두 장님이다. 그리스도인이라야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가 있다.”³⁾

그렇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교훈을 준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위로가 주는 사람이다.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믿겠다 했고, 그대로 경험한 후에야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더 훌륭하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우리 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지 못했고, 그 몸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믿는다. 왜인가? 에베소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신실한 성도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충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말이다. 신실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 부활 등을 부정하는 책이나 논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미래를 본다는 무당들의 이야기에 휩쓸려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

3. 맺으며

에베소서는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하다. 쓴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의 내용이다. 편지의 가장 첫

3) 존 칼빈 에베소서 설교 상 p 44쪽

문장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 서신을 썼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오늘날의 우리까지 수신인이 되어 이 편지를 읽고 있다. 우리의 후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날까지 읽고 가르침을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요즘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묻지 않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서 곤란할 때가 많다. 그만큼 그리스도교가 그 진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느냐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안디옥 교회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불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already, not yet.’의 상태에 있다. 이미 하늘나라 시민으로 들어가 있지만, 발이 아직 땅을 밟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언행을 하기도 한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심을 느낀다는 점이다. 남들에게는 문제없는 언행이라도 스스로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죄가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어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 생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여 성도가 되어라, 신실한 자가 되어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도, 해야 할 행동도 말도 조용히 일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의 본문에서 어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예수 안에 있는(εν χριστῷ ἡμεῖς)’일 것이다. 그리스도인, 성도, 신실한 자가 모두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에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앞으로 볼 에베소서의 여기저기에서 그 말을 접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짧은 편지에 무려 30회 이상이 나온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예수 안에 있어 참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면 그 정의의 불꽃이 너무 강하여 우리는 다 타버릴 지도 모른다.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불완전한 인간 대신 그 아들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참으로 축복이다.

4) 마사이케 진, 신앙논설집 하편, 390쪽.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지리라

연 창 호

여호와께서 불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그의 수레는 회오리바람과 같을 것이다.
그가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고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불과 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
우상을 모셔 놓은 정월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그 밖의 다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망할 것이다.(사 66:15~17)

○ 15절의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온다는 표현은 불이 하나님을 가리키기(신 4:24)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삼키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타는 수레는 회오리바람과 같다는 것은 엘리야가 수레 타고 승천할 때 회오리바람이 일어난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일종의 불수레지요. 16절의 ‘모든 사람’은 ‘바싸르’로서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뜻의 ‘악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민노라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자가 심판의 대상에 먼저 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심판은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 받습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일까요.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거

룩한 체를 하고 정결한 체를 하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만들어진 정원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무리입니다. 돼지와 쥐는 다산(多産)을 상징합니다. 기복의 수단으로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7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종교의 행태를 따라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만족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식과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즉 돈과 명예와 자랑의 탐심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양심을 따를 것이냐, 욕심을 따를 것이냐의 한판승부가 펼쳐지는 곳이 삶입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과 소행을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칠 민족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은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살아남아 도망하는 자들을

다시스, 리비아, 활 쏘는 사람들이 많은 리디아,

두발, 야왕, 그리고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나라로 보내겠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용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성전에 가져오듯이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너희 모든 동족을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며
나는 그들 중 일부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사 66:18~21)

○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행위와 사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18절에서 보듯 예루살렘이 열방과 민족들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칠 민족들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라니요?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라니요? 정말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방과 민족을 도구로 써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그 결과 현대인의 성경을 제외한 개역본, 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단순히 열방을 모을 것이라고 말함). 19절의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이고 뿔과 뿔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두발은 흑해 남쪽이고 아왕은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가장 먼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물을 들고 예배드리러 올 것이며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 외국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후 신약교회에서 성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혈연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보편성이 역사를 계시하고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면 선민에게도 심판이 임하며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과 혈통 중심의 부족적,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유일신이 이사야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이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神관념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민족과 혈연을 초월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정신을 계승한 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존속할 것이 분명한 것처럼

너희 후손과 너희 이름도 분명히 존속할 것이다.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거역한 자들의 죽은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파먹는 벌레들이 죽지 않고

그들을 태우는 불도 꺼지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사 66:22~24)

○ 하나님이 만들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현장에서 실현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분명히 2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현존, 존속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비롯한 세상 만민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구분해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므로 쉬지 않고 일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역사 속에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완성이든 종말이든 어찌 말하든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 새 땅의 건설이 역사 속에 실현되리라는 것이 성서의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무리는 심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요, 믿는 자라는 것이 이사야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교 2천 년의 역사에서 교회는 대적자였을까요? 그 반대였을까요?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지원했을까요? 막고 훼방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세상과 인간 개개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정신이고 이를 이은 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고통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 불평등과 불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고통 앞에 신을 향한 욕의 호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는 한탄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수난을 받으며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에 저항할 때 수난당하는 길이 좁은 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악에 순응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의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신지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천국으로만 아는 것은 병든 종교에 중독된, 자기 기만이자 자기 우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역사의 순간마다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심판과 구원을 빙자해 자기들만의 배를 채우고 성장이 전부인 듯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지요. 믿는 자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이사야서의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정리해서 올림)

이사야서 공부

(유배자들의 귀향 I)

[이사야서 11장 10절-16절]

최 정 일

<본문 번역>

(10절)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 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절)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下)이집트와 상(上)이집트[=파트로스]와 에티오피아[=구스]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시날]와 하맛과 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되찾아 오실 것이다. (12절) 아훼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13절) 그 때에는 에브라임은 질투를 버리고 유다는 적개심을 끊을 것이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14절) 그들은 함께 서쪽 블레셋 언덕을 덮치고 동쪽 백성들을 약탈할 것이다. 에돔과 모압은 그들의 손에 휘어 잡히고 암몬 백성들은 굴복할 것이다. (15절) 아훼께서 열풍을 일으켜 이집트 바다의 물목[=만(灣)]을 말리시고 손으로 유프라테스 강(江)을 쳐 일곱 줄기[=개울]로 가르시어 신을 신은 채 넘어오게 하실 것이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큰 길이 트일 것이다.

A. 안소근 교수의 개론

(1) 이 대목은 바빌로니아 귀양살이 때 또는 바로 그 다음에 추가했을

것이다. 분명 이사야 예언자 자신의 것이 아닌 후대의 본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 당신 백성의 본모습을 다시 만드신다.

(2) 내적 분열이 모두 고쳐지고 백성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B. 각절주해[11장10절-12절]

(1) 안소근 교수의 해석

1) 10절

① 11절에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만을 말하는데 10절에서는 만민, 모든 민족까지 말하고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사야서> 뒷부분의 사상을 바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들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순간이 된다」고 해석된다. 즉 유배의 고통 중에 있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당신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들의 깃발로 세우시는 것이다.

② 그런데 10절의 마지막 구절이 <70인역그리스어성서>에서는 「그의 안식처는 영광이 되리라」[=에스타이 에 아나파우시스 아우투 티메=έσται η αναπαυσις αυτου τιμη]라고 되어 있고 <불가타 라틴어 성서>에서는 「그의 무덤은 영광스럽게 되리라」[=에리트 세풀크룸 에이우스 글로리오숨=erit sepulchrum eius gloriosum]로 되어 있다.

③ <불가타 라틴어 성서>를 번역한 제롬[=히에로니무스]은 이 구절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70인역 그리스어 성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처」[=아나파우시스:rest=Ruhe]라는 말을 썼고 제롬 자신은 자신이 번역한 <불가타 라틴어 성서>에서 독자들에게 의미를 밝혀주기 위하여 「무덤」[=세풀크룸=Grab]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2) 11절

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손을 드시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가) 대부분의 해석자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당신 손을 드신 것」은 출애굽 때라고 본대[사 11:16 참조]

(나) 이브 에스라와 현대의 일부 해석자들: 「첫 번째로 손을 드신 것」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때이고 「두 번째로 손을 드신 것」은 첫 번째의 귀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시 모이지 못하고 아직도 흩어져 사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들이시리라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사56:8-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 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 들이겠다] [한편 사56:8의 해석으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 이 개방성은 율법에서 정해진 제약(신23:2-9절-[4절]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영원히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9절] 에돔족과 이집트인들에게서 삼 대손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을 뛰어넘고 닫힌 국수[國粹]주의를 깨트리기 시작한다.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② 「아시리아에서 남은 사람들」: 아시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가서 살게 된 것은 시리아-에프라임전쟁[기원전 735-734년: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필에세르3세가 기원전 733년에 다마스쿠스를 파괴한다]때와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때부터였다.

③ 「하(下)이집트(나일 강 하류쪽)에서 남은 사람들」: 오래전부터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다.

④ 「상(上)이집트(=파트로스)에서 남은 사람들」: 상 이집트는 나일강 상

류쪽이다.

⑤ 「엘람에서 남은 사람들」: 엘람은 현재의 이란 지역이다. 페르시아 왕의 거쳐인 「수사」가 이 지역에 있었다.

⑥ 「바빌로니아(=시날=신알)에서 남은 사람들」: 시날은 바빌론의 옛 이름이다.

⑦ 「하맛에서 남은 사람들」: 하맛은 시리아 중부의 도시이다.

⑧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 이는 지중해 해안지방과 섬들을 가리킨다. 페니키아인들과 블레셋(=필리스티아)인들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인들을 그리스의 섬들에 노예로 팔기도 했다.

⑨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는 이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지 않았다. 기원전 8세기의 (제1)이사야 예언자 시대라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리아이고 그 밖의 지역들은 주로 후대에 첨가된 것일 수 있다. 이는 (제1)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를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재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또한 아시리아에 유배간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주시기 때문이다.

⑩ 「그의 남은 백성들을 되찾아 오실 것이다」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속량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리크노트」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원래 「사다」 [=buy]라는 뜻으로서 「팔려가거나 잡혀간 당신 백성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데려오신다」라는 말이다. [리크노트의 원형동사인 「카나」는 사다, 구매하다, (백성들을 포로로부터)구속하다, 세우다, 획득하다의 뜻이다].

3)12절

① 「야훼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고」: 이 구절은 [사5:26-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시어 먼 곳의 백성을 부르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땅

끝에서 사람들을 부르신다)(=아시리아인들의 침입)의 역전이다. [사5:26]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하여 아시리아를 불러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민족들에게 깃발을 올리시어」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아들이신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흠어진 유다 사람들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함락된 후의 상황이다. [사49:22-23:기적적인 귀향과 복구]-(22절) 주 야훼께서 이렇게 내가 손을 들어 만국을 부를 것이다.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날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목마 태워 올 것이다. (23절) 왕들은 너의 시종이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은 땅에 이마를 대고 너에게 경배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님임을, 나를 고대하는 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2)루터의 해석

1)10절

① 「그 날이 오면」: 이것은 이방인의 부르심과 이방 민족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킨다. 유대인과 이방민족이 한 몸으로 결합될 때 그 때는 필연적으로 유대의 의식률(儀式律)이 폐지되어야 한다. 즉 이 기사는 모세의 의(義)와 「행위들의 모든 공로」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폐지시키심을 말하고 있다.

② 이 기사는 이방인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으니 반드시 율법주의와 율법에 의한 모든 예배가 폐지되어야 함도 함께 말하고 있다. 율법주의가 폐지되므로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의(義)는 오로지 은혜로 이루어지며 우리 인간의 바깥에서 이루어짐이 그 귀결로서 나타난다.

③ 이와 같이 [시 117:1]에서도 율법주의의 폐지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

하여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라고 선포하고 있다. 또한 이 [시 117:1]에서는 율법주의의 폐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해진 행위들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기한 의(義)가 선포되고 있다. 왜냐면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백성들이고 따라서 온갖 종류의 죄들로 덮여져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④ 「이방 민족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돌아난 새싹을 쳐다보고 그에게 찾아든다」: 여기서 이방 민족들이 모세를 찾는 것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 즉 율법도 모세도 레위족의 제사장들도 그리고 예언자들도 우리가 의(義)에 이르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음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요 12:32-33:인자는 들어 올려져야 한대]에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고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힘」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이 상징하는 생명을 나누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다. 참된 메시아는 자기 자신을 바쳐 모든 사람이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⑤ 이방 민족이 이새의 뿌리에서 돌아난 새싹을 쳐다보고 그에게 찾아들므로 유대인도 이방 민족도 모두가 이새의 뿌리에서 돌아난 새싹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義)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義)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의(義)도 하나님의 의(義)에 이르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행위(=역사)가 아닌 다른 어떠한 행위와 공로도 「그 행위와 공로가, 그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해질 때에는 그 모든 행위와 공로는 정죄(=단죄)받은 것일 뿐이다.

⑥ 「쳐다보고 찾아든다」 (원래는 「물어본다」의 뜻임)의 의미는 「믿고 애타게 찾아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義)를 가진다」라는 뜻이다. 그러므

로 이 기사는 유다 백성의 나라도 이방 민족의 나라도 모두 제거한다. 왜냐면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찾아들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기사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나라들을 쓰러뜨리고 없애버린다. (루터 당시의) 교황주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⑦ 그러므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돌아난 새싹은 불가피하게 세상 모든 나라에 혼란과 소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 자신(유다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두)의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찾아들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뜻은 복음이 선포된다는 뜻이다. 왜냐면 그리스도는 복음에 의하여 선포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육=사탄)과 그리스도(=복음)의 싸움은 치열하고 처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깃발은 군기(=싸움터에서 싸움을 독려하는 깃발)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언제나 이 처절한 싸움(=사탄과 세상과 육에 맞서는 싸움)의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다.

⑧ 「그가 있는 곳에서 영광이 빛날 것이다」: <불가타 라틴어 성서>에서는 「그가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번역하지만 나(=루터)는 「그의 안식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의 죽음」이 「그의 안식처」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다.

⑨ 나아가 이 기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도 함께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이새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가 「이새의 자연적 후손」이신 것을 가리키므로 「그리스도가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본성상으로 인간이시고 또한 참 인간이심」을 나타내지만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쳐다보고 찾아든다」는 것은 「예수의 신성(神性)」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면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 11:11]에서도 「그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 손을 두 번째로 다시 드실 것이니 생존해 있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속량하시려는 것이다」라고 즉 「속량하신다」[=해방하신다=구원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사 8:11-15: 주님만을 두려워하여라]에서도 「(11절)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13절)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고 있고 [사7:14:두 번째 경고:임마누엘의 표징]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있다.

왜냐면 「이방인들을 구속(=속량)하려면 반드시 그 구원자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구원자는 죄의 몸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즉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한다.

⑩ 나아가 이 기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서 쉬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기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안식이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그의 죽음 뒤에 그는 영광스럽게 다시리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2) 11절

① 이것은 비유와 상징의 표현이다. 즉 「여러 이방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민족들이 하나의 에클레시아 안에 모일 것이다」라는 뜻이다.

② 「파트로스」(=상 이집트)는 키레네 지역을 가리키고 「엘람」은 페르시

아를 가리키며 「시날」은 바빌론을 가리키고 「하맛」은 안디옥을 가리키며 「바다의 섬들」은 서쪽의 지중해 안의 섬들을 가리킨다.

3) 12절

이 기사도 육적 방식에 의한 귀환 즉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3) 칼빈의 해석

1) 10절

① 이사야 예언자는 다시 「그리스도의 인격(=위격=person)」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11장의 서두[메시아의 평화의 나라: (1절)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에서 이미 행한 「썩은 나무의 줄기에서 싹트는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반복한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전에는 유다 민족을 싫어하던 이방인들이 앞으로는 겸손하게 「유다인의 왕」 앞에서 경배할 것임을 예언한다. 그리고 이 예언(=약속)은 틀림없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수 백년동안 조롱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한 이방인의 경배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었을 때보다는 이스라엘 왕국이 번영할 때 더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썩은 나무의 본체)이 멸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왜냐면 그래야만 그 뒤에 다시 싹이 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안에서 과거에 번영할 때보다도 더욱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지(=싹)가 그렇게 높이 자라올라서 모든 민족들이 보고 그 눈을 돌릴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③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이제 이 「싹」은 위로 높이 뻗친 깃발에 비교된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선포에 의하여 성취되었음을 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구름 위로 치솟으신다. 이것은 같은 목적으로 [요 3:14: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다]에서 「모

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하늘에 있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 21:9:구리 뱀]에서도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라고 있다.

④ 「민족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그리스도께 피신할 때 「그리스도는 찾아진다」라고 표현된다. <성서>의 도처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70 인역 그리스어 성서>에서는 「그를 찾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은 희망을 둘 것이다」[=nations shall hope in him]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사지냄」[=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즉 이 기사의 의미는 「세상의 눈에는 치욕스럽게 보인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내=칼빈은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가 있는 곳」을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고 본다. [시 132:13-14:주님은 늘 백성과 함께 계심에는 「(13절)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4절) 이곳은 영원히 내가 설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있다.

⑥ 이같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스도 신자의 모임」에 명예로운 칭호를 부여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영원한 거처를 가지시겠다고 선택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는 비난받고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받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 다시 에클레시아는 더 번성하는 상태로 들어 올려져서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약속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에클레시아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중대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2) 11절

①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에클레시아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 놀랄 만하므로 이사야 예언자는 「에클레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잊을 수 없고 비범한 위업(偉業)이다. 이제 선민의 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야 예언자는 선민들의 마음에 과거의 해방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리아, 이집트 등 쫓겨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출12:51: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에서는 「바로 이 날(=유월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있다.

② 「쉐니트」[히브리어]라는 단어는 「두 번째로」 또는 「다시」의 뜻이다. 이것은 「이제 또한 하나님은 그의 에클레시아의 해방자가 되시고자 한다」라는 뜻이다.

③ 「그의 남은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당신 백성의 남은 자를 속량하시려는 것이다]: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또 다른 근거를 들어 자신이 예언한 것을 확인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이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에클레시아의 구원을 돌보실 것이다」가 된다.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는 분명히 「해방되는 백성」을 「남은 백성」이라고 부른다. 왜냐면 「이 해방은 오직 소수의 씨에게만 속했기」 때문이다. [사1:9: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에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고 있고 [사 10:22:이스라엘의 남은 자]에서도 「이스라엘아 네 백성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있다.

④ 이것은 과거에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과 같다. 즉 이사야 예언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에클레시아를 쫓아버리고 흩어 버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유산이 소중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분의 에클레시아는 소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바빌론 포수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137편>「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처럼 노래하고 있었다.:

「(1절)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젖노라 (2절) 그 강변 수양버들 나뭇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노라 (3절) 우리를 잡아갔던 그 자들이 노래를 거기서 부르라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자들이 신명을 내어보라 조르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 가락 들려달라 하였어도 (4절) 우리 어찌 야훼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까 보냐 (5절)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 하면 내 오른손 그 솜씨도 잊혀지리라 (6절)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기억)하지 않는다면, 으뜸가는 기쁨으로 내 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7절) 야훼여 에돔을 거슬러 예루살렘의 그날을 회상하소서 그들은 무너뜨려라 바닥까지 무너뜨려라 하였나이다. (8절) 아 침략자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네게 다 양갓음하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9절) 네 어린 것들을 붙들어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⑤ 「아시리아와 하(下)이집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사야 예언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아시리아만 말하지 않고 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가서 사는 다른 민족들도 말하고 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이집트로 도망갔고 일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로 도망갔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⑥ 「파트로스」는 파르티아 또는 아라비아 산악지대를 뜻하며 「엘람」은

메디아, 조크디아, 박테리아(=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의 동북부에 있던 고대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신아르」는 갈대아(=고대 바빌로니아)에 속한다. 「하맛」은 길리기아(=소아시아의 동남해안지방)와 타우루스 산맥을 향하여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가리킨다. 「바다의 섬들」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에는 그리스, 로마, 스페인도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이들도 지중해에 의하여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단지 「섬들」만이 아니라 「모든 먼 지역들」도 이 「바다의 섬」=우메이예:히브리어:and from the islands of]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포함된다.

⑦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는 단지 제룹바벨(=스룹바벨) 아래서 일어났던 해방[주전538년-주전515년]라 2:1-2:돌아온 유배자들-(1절)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2절) 그들은 제룹바벨이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 즉 제룹바벨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귀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바빌론 포수에서의 해방(=귀환)사건과 관계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래서 이 해방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얻어졌기 때문이다.

⑧ 나아가 이 일(=역사=해방)은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 왜냐면 [사 11:11:유배자들의 귀향]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해방)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성취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총들로부터 언제나 미래를 위한 선한 희망들을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빌론 포수로부터의 해방과 출애굽 때의 해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옛날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게 된다[출 12:51: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 라 2:1-2:돌아온 유배자들].

⑨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바빌론 포수에서의 귀환 때 하신 것은 그 후에도 하실 수 있으시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므로 우리는 「구출되는 사람들」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의(義)가 풍성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참되고 풍성한 확신의 근거를 가진다.

3) 12절

① 「주님께서 못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이 구절은 앞의 구절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은유적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가)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심으로써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그들이 감히 당신 백성의 귀환을 막지 못하게 하시는 것과 (나) 비참한 상태의 포수민들을 격려하여 귀환을 서둘러 준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② 이 의미들은 오늘날(=칼빈 당시)의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유효한데 즉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치켜드신 복음(=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신다)에 우리가 모이라는 촉구(촉구의 의미)이다.

③ 우리는 우리가 이 깃발(=그리스도)에 믿음으로 모이지 않으면 모여질 수가 없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양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요 10:27: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있다.

④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여기서

는 「모으다」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효과적이고 강력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즉시 이루어진다[여기서는 자기 백성의 회복이다]. [신30:2-5:주님께 돌아오다]에서도 「(2절)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붙잡히 여기셔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흠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4절)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있다.

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휘」에서도 일어난다.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는 지금 황폐하고 흠어진 에클레시아의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이 깃발, 즉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외는 남은 자들이 다시 모일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희망을 자주 기억해야 한다. 이 약속에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지면관계로 이사야 11장 10-12절에 대한 해석은 안소근·루터·칼빈 편과 델리치 편을 나누어 2회에 걸쳐 연재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과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람과의 1,2,3차 전쟁과 나봇의 포도원

조 규 철

성경 : (왕상 21:25, 공동번역)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농간에 빠져서 목숨을 내던져 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웃 나라 아람의 다마스쿠스(다메섹) 왕 벤하닷 1세와 전쟁하여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라못 등 성읍 몇 개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합왕 때에는 벤하닷 1세의 아들, 벤하닷 2세가 다마스쿠스의 왕이었습니다. 이 때 아람은 도시국가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마스쿠스가 그 대표 도시였습니다.

아람과의 1차 전쟁

벤하닷 2세는 지방의 영주 32명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와서 진을 쳤습니다. 벤하닷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내들과 아들들도 나의 것으로 삼겠다.”

아합은 아람과 전쟁을 벌인다면 자기가 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의 요구를 수용하는 굴욕적인 회신을 보냅니다. “왕이 말씀하신대로 저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이 회신을 받은 벤하닷은 사절을 다시 보내어 추가적인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의 요구는 그대의 은금과 왕비들과 왕자들을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었다. 하나 더 요구하겠는데 내일 이 맘 때에 내가 나의 부하(신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신하들의 집까지 뒤져서 값진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겠다.”

신하들의 집까지 노략질하겠다는 벤하닷의 추가적인 요구에 아합은 신하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에 아합은 첫 번째의 요구는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의 요구는 거절한다는 회신을 보냅니다. 이리하여 양측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에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나타나 조언합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군인들을 앞세우고 아합왕 당신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시오. 야훼께서 그들을 당신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왕이 점호해 보니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군인 수는 232명이었고, 이스라엘 전체 군인은 7,000명이었습니다.

이 때에 벤하닷과 지방영주 32명은 막사에서 술에 취해 꿀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합왕은 예언자의 지시대로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군인들이 앞세우고 아람을 기습하여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뒤는 정규군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왕은 크게 이기고 벤하닷은 도망칩니다. 이렇게 아람과의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언자는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서 벤하닷이 내년에 또 쳐들어 올 터이니 미리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람과의 2차 전쟁

아람으로 돌아간 벤하닷은 신하들과 논의하여 2차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1. 평지(벌판)에서 전쟁하기
2. 32 지방 영주 대신에 전투 지휘관을 임명 배치
3. 1차 전쟁에서 잃은 병사, 군마, 병거 보충

준비를 마치자 벤하닷은 이듬해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평지인 아벡을 전장터로 삼았습니다. 이때에도 한 예언자가 아합왕에게 나타나서 아훼께서 산의 신이기도 하시고 벌판의 신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양측은 7일간을 서로 대치하다가 싸움에 들어갔는데 아람은 크게 패하고 패잔병들은 아벡성 안으로 후퇴합니다. 때마침 성벽이 무너져 패잔병 27,000명이 깔려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벤하닷도 성채 안의 골방에 숨었습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은 머리를 써서 아합왕의 자비심에 기대를 거는 모험을 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허리에 걸치고 새끼줄을 머리에 감고 아합왕에게 나아가 벤하닷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합은 벤하닷을 의형제라고 부르며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벤하닷은 자기의 부친이 아합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거리(무역시장)를 열어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주자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아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가 죽여야 할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대신 죽이겠다. 또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침울한 심정으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끝난 후 3년간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와 우호의 시기였습니다.(BC854~BC 851) 이 시기에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3세가 아람을 침공합니다. 이때 아합은 아람의 벤하닷에게 병거와 군사를 지원해줍니다. 살만에셀 3세는 북이스라엘-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후부터 앗시리아는 점차 세력을 키워가서 약 130년 후에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BC721)

나봇의 포도원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고, 이스라엘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그 별궁에 접해서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인수해서 별궁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네의 포도원을 나에게 양도하게.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주겠네.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싣가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네.” 아합의 제안은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대답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드리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토지는 사정이 있다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희년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은 침울한 심정으로 별궁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일 때문인지를 묻자 아합이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정을 알게 된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건달 두 사람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후에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열어라 라는 내용은 모든 수신자에게 보냈을 것이고 건달 두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증언 시키라는 내용은 한 사람에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처형당한 자의 소유는 하나님의 전에 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신

13:16). 그런데 당시에 왕을 배반하고 모독한 죽은 자의 땅은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갔습니다.

이 때 아훼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내 원수야 또 나를 찾아왔느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또 왔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 버리겠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 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습니다.

아훼께서는 그가 겸손해진 것을 보시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 가문의 재앙은 그 아들 대에서 일어나지만, 아합 자신의 재앙은 자기 대에 일어납니다.

아람과의 3차 전쟁

아합은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났으나 벤하닷은 자기의 부친이 아합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길르앗 라못 등의 땅을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여호사밧을 북쪽 이스라엘로 초대하여 제안합니다. “원래 우리 땅인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지요.”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것, 네 것 따질 사이입니까? 내 군대, 네 군대 따지겠습니까? 내 군마, 네 군마 따지겠습니까? 당장 아훼께

여쭙어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아합은 예언자들을 사백여 명 모아 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는가?" 예언자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공격하십시오. 야훼께서 길르앗 라못을 임금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아합이 모은 예언자들은 아마도 바알의 예언자들일 수도 있고, 바알도 섬기고 야훼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듣고 여호사밧은 남쪽의 예언자들의 말투와는 다른 느낌이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 볼만한 다른 야훼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하고 아합에게 묻습니다. 아합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일이면 사사건건 잘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 번도 잘 되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급히 데려 오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그를 만나 말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만사가 왕의 뜻대로 되리라고 예언하였소.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은 말로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언하십시오."

미가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따름이오." 하고 대답합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습니다.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는가?" 미가야가 대답하였습니다. "쳐 올라가 정복하세요~. 야훼께서 길르앗 라못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말의 내용은 긍정적인데 그 말투가 빈정대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듯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역

정을 내었습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나에게 말할 것을 몇 번이나 서약시켜야 하겠는가?"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지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이것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모두들 고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아합이고, 목자 없이 되었다는 것은 아합이 죽는다는 것이고, 주인이 죽으니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입니다.

아합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한 번도 내가 하겠다는 일이 잘 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가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자입니다."

미가야는 추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야훼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보니, 야훼께서 온 하늘 군대를 좌우에 거느리시고 당신의 옥좌에 앉으시어, '아합을 꺾어내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다가 죽게 할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럿이서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야훼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합을 꺾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어떻게 하여 그를 꺾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꺾어내면 되겠군.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합왕은, 미가야를 붙잡아 그 성읍의 영주에게 끌고 가서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전장에서 돌아 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도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남북의 연합군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는 사병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장에 나갈 터이니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입고

나가라고 권해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대로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합의 음흉한 속셈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으면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될 것이고 자기 딸 아달라는 왕비가 됩니다. 만일 아달라가 여호람을 은밀하게 제거한다면 남북은 아합 왕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벤하닷은 32명의 병거대 대장들에게 지시하기를 아무 나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아합왕만 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병거대 대장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아합왕인 줄 알고 공격하였으나, 여호사밧이 기겁하여 소리치자 아합왕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던 중에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에 꽂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합은 전장터에서 빠져 나오려고 했으나 전투가 맹렬하고 병거들 사이에 갇혀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진영에 “왕이 죽었다.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라는 명령이 전달됩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남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물려 받았습니다.

예수전(199)

塚本虎二(김 형 철 역)

제207강 유대인의 왕, 만세

마가 15장 16-20절a (마태 27:27-31a, 요한 19:1-3)

16 병졸들은 관저, 즉 총독관사 안으로 예수를 끌고가서 왕의 꼭두각시놀음을 보이기 위하여 전 부대를 불러 모았다. 17 그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왕으로 꾸민 뒤 18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갈채를 보냈다. 19 그리고 나서 갈대막대기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a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본래의 옷을 입혔다.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그를 채찍질한 후 병졸에게 넘겼다(제204강). 채찍질은 십자가에 매다는 처형의 일부인데 병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모욕하고 학대하였다. 같은 기사가 마태와 요한에 있다(마27:27-31a, 요19:1-3). 누가는 빠뜨리고 있다.

16-20a 예수를 희롱한 병졸들은 빌라도의 근위병이었는지, 안토니아 성채의 로마 수비대원(행21:31)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학대가 안토니아에서 있었다면 후자이고 이를 보이기 위해 불러 모은 “온 부대”는 일반의 군인들이므로 후설 쪽이 옳아 보이지만(로마이어) 전설도 유력하다.

“관저, 즉 총독관사 안으로 끌고 가서”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안뜰로 끌고 갔다. 이것은 총독관사이다”이다. 그러나 “안뜰”이 분명하지 않으므

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안뜰의 원어 아우레에는 안뜰과 관저, 두 의미가 있다(제199강 참조). 프라이토리온은 총독관사이므로 아우레를 안뜰의 의미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까지는 관저 밖에서 재판을 행하였는데 판결을 마치고 병졸들이 예수를 관저의 안뜰로 끌고 간 셈이 된다. 그러나 “안뜰로 끌고 갔다, 이것은 총독관사이다”라는 표현이 매우 무리한 표현이므로 근간에는 “관저에(아우레), 즉 관사(프라이토리온)로 끌고 갔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그 설에 의하면 아우레와 프라이토리온은 같은 의미인데 전자는 그리스어이므로 로마인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라틴어의 프라이토리온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마태에는 “예수를 총독관사로 끌고 가서”라고 있어, 이를 마가에 주로 쓴 것이 본문에 끼어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병졸들이 자기들만 보는 것이 아까웠던 때문이었는지 “온 부대”를 불러 모아 꼭두각사놀음을 구경시켰다. 전 부대(주)란 600인 부대라고 할 300명 내지 600명의 보병 부대이다. 레기온 즉 1군단의 10분의1이다.

(주) 스파이라. 라틴어로는 cohorts. 이는 로마인을 징집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만으로 구성되었다. 단 유대인은 징병 면제였다.

17절부터 바야흐로 모욕이 시작된다. 맨 처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 “유대인의 왕, 만세”소리치며 경례하고, 그런 후에 갈대로 머리를 두들기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기술이 약간 원활하지 못하다. 마태 쪽은 옷을 입히는 것과 관을 씌우는 것은 같은 순서이지만 “만세”하기 전에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하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있다. 즉 마태 쪽은 전반 “만세”하기까지 조롱, 이하가 학대로 되어 있어 이쪽이 바른 순서 같아 보인다. 그리고 마가에는 갈대를 손에 쥐게 하였다는 기술이 없으나 이것은 홀을 의미하므로 왕복, 왕관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원형인지는 알 수 없다. 마태가 정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역사적 순서는 마태 쪽일

것이다.

자색 옷은 물론 왕복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한 것이 예수가 고발당한 이유이고 또한 처형의 이유이기도 하므로 그것을 들은 병졸들은 지금 그를 왕으로 꾸며서 꼭두각시놀음을 벌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자색의 왕복이 있을 턱이 없으므로 로마의 병졸이 입고 있는 주홍색 전포(戰袍)로, 그것도 다 낚아서 너털너털한 것으로 대신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주홍색 외투”라고 말한다(28). 그리고 그 근방에 있던 가시나무를 주워 와서 관을 엮어서 씌웠다. 이것은 왕의 월계관을 빗댄 것이므로 둥글게 엮은 것이 머리띠 모양이었을 것이다. 단지 장난삼아 익살을 부린 것인지 또는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로마이어서는 두 가지 다일 것이라고 말한다. 보통 우리가 액케 호모의 그림에서 보듯 가시에 찢려 얼굴에 선혈이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마태에는 다음에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라는 말이 있다(29). 앞에서 말하였듯이 왕의 홀을 의미한다. 갈대의 줄기를 손에 쥐게 한 것이다. 결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으로 질 수 있는가 하고 학자는 걱정한다. 옷을 바꿔 입게 하였을 때 줄을 풀었을 것이라고 다른 학자가 대답한다. 그리고 마태에는 외투를 입히기 전에 “[옷을] 벗기고”라고 하였다(28). 일단 벗겨벗긴 후에 옷을 갈아입게 하였으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주)

(주) 시내사본과 그밖에 대다수는 본 역처럼 되어 있으나 유력한 사본 B에는 “벗기고”가 “입히고”로 되어 있다. 즉 채찍질 시에 일단 옷을 벗긴 것을 다시 본래의 옷을 입히고 그 위에 자주색 옷을 입힌 것처럼 해석되는데 31절을 보면 그 외투를 벗긴 뒤에 본래의 옷을 입혔다고 하였으므로 그렇지 않은 듯싶다. 이 부분의 원문은 “그 옷을 입히고 [즉] 자주색 외투를 입히고”라는 의미로 볼 수 없지도 않으나 무리임에 틀림없다. 물론 다수의 사본처럼 “벗기고”라고 하면 문제는 없으나 원활한 만큼 고쳐 쓴 의심이 농후하다. 그런데 B 외에 D, 고대 라틴역 등도 “입히고”로 되어 있다. 이것들대로라면 자주색 외에 자색 옷을 한 벌 더 입힌 듯싶다. 시내 시리아역도 같다. 이렇게 보면 “입히고” 쪽이 원형 같아 보이는데 무언가 혼란이 있다.

이렇듯 병졸들은 “유대인의 왕, 만제”하며 경의를 표하였다. “갈채를 보

냈다”는 만세를 외치고 충성을 맹세하며 환영한다는 의미이다. 마태는 이 앞에(29), 마가는 뒤에 무릎을 꿇고 있다. “만세”의 원어는 마태26:49 “안녕하십니까”와 같이 인사말이다. 여기서는 “만세”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느낌을 준다. 로마에서 개선하는 카이저를 환영할 때 Ave Caesar, victor, imperator(승리자 황제 카이저 만세)라고 한 것을 본뜬 것이다.

이상이 모욕 조롱이고 19절은 학대이다. 즉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뱉었다. 무릎 꿇고 경배한 것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조롱 부분에 들어간다.

이 모든 무자비한 놀음이 끝나자 병졸들은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본래의 옷을 입혔다.

마태의 기사는 이미 언급한 점을 제하고는 마가와 같고 별로 특기할 것이 없다. 누가에는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이 기사가 없다. 마가와 마태에 없는 헤롯 심문 때에 같은 사실을 적었기 때문에 생략한 듯싶다(제203강 참조). 혹은 이를 기록하면 로마인에게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자도 있다. 요한에는 19:1-3에 기사가 있으나 마가14:65의 손바닥으로 쳤다는 것이 들어 있는 외에 마가의 기사를 간단히 하였을 뿐이다.(주)

(주) 베드로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이렇듯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심판 자리에 앉힌 뒤에 말한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바르케 심판하라.” 그 중의 한 사람이 가시관을 가지고 와서 주의 머리에 씌웠다. 또 어떤 자는 일어서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떤 자는 뺨을 손바닥으로 치고 어떤 자는 갈대로 그를 찌르고 또 어떤 자는 “우리는 이같이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자”고 말하면서 채찍질하였다.

1 이 16-20은 15b를 길게 늘어놓은 부분으로 즉 채찍질하였다는 것을 신파극조로 재미있게 쓴 것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20b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한 것이 15b의 끝부분과 중복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이유의 하나이다. 그러나 채찍질한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의 일부로 극히 잔인한 형벌이다.(주)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 거의 감각을 잃을 정

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다. 이에 반하여 16-20은 조롱으로 그와 같은 잔인성은 없고 희롱조의 장난기분이다. 후반의 학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5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넘겨 준 것이고 20은 이제 막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그 병졸들이 예수를 관저나 혹은 동리에서 끌어낸 것으로서 전혀 다른 장면이다.

(주) 요세푸스의 기사에 로마 병이 예루살렘의 양민을 붙잡아 재판소 앞에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단 일([전사] 2:14-9), 디도스의 포위 시 붙잡은 자를 채찍질하고 학대하여 성벽 앞에서 십자가에 매단 일([동] 5:11-1)이 있다.

2 14:65와 매우 기사가 비슷하다. 침 뱉은 일, 매질한 일, 특히 모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있었다는 것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복사일 것이라는 의심을 질게 한다. 한 예로 로마지는 65를 그곳을 연구할 때 제시한 구약의 구절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16-20의 복사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자는 유대인이 행한 것이고 후자는 수난예고의 성취로서 이방인이 저지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자가 예언의 강요라고 한다면 최고법원 심문의 내용에 대응하는 것이고 후자는 빌라도 심문의 내용에 대응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법원 심문은 빌라도 심문의 복사가 아닌가 하는 큰 문제에 관계되어 있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 만일 어느 한쪽이 “복사”라고 한다면 최고법원 심문의 조롱 쪽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3 애당초 이 조롱 전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는 이미 그로티우스가 알아낸 이집트에서 드러난 이와 비슷한 사건이다. 즉 알렉산드리아의 피로가 쓴 기록에 의하면 카리구라황제로부터 유대의 왕관을 받은 아그립바왕이 귀로에 이집트를 지나올 때 그를 조롱하려고 그곳 시민들이 어떤 멍청한 사람을 왕으로 꾸며 그에게 종이 관을 씌우고 길가에서 주은 막대기를 홀 대신으로 손에 쥐게 하고 모두 그에게 경배하였다, 고 한다. 그리고 제204장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이

와 같은 관습이 페르시아의 사케아, 로마의 사쓰루나리아 축제에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것에서 예수의 꼭두각시놀음을 만들어 내서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라바의 경우에서 말하였듯이 사케아 축제의 가라바에서 바라바가 생겼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의 조롱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보고 들은 병졸들이 이것을 응용하여 이런 놀음을 벌였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예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승인하신 후 이 조롱에 대하여 3회에 걸쳐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제97, 108, 131강 참조). 그것을 3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극히 중대사로 제자들의 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 예수는 이처럼 자주 이를 예고하셨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은, 승리자로서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오는 자가 먼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모순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였던 유대인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것이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실현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눅 24:44이하, 18:34, 막9:32, 눅9:45 참조).

구세주이신 예수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것은 그가 “세상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요 1:29),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막 10:45).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로서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는 고난과 영광이 앞과 뒤의 양면을 이루고 있으며 둘은 서로 결합하여 떨어지지 않는다(롬

8:17-18, 딤후 2:10이하). 그러므로 사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행 5:41, 약 1:2, 벰전 4:13).

어찌하여 우리들은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 자신이 고뇌의 본원이시기 때문이다. 한 집안에서는 주인이, 한 나라에서는 그 주권자가 최대의 고난을 맞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온 우주의 “쓰레기 장”인 하나님은 온 우주의 불평불만 모욕 고뇌, 모든 악을 무한한 인내로써 견뎌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조롱 받고 학대 받는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못 놀랄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주의 기도에 무어라고 하였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라고 함은 하나님은 지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엇 하나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효막심한 자식이 온갖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꼭 참고 견디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습의 한 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사야의 저 심오한 예언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고뇌를 참고 견디신 예수의 모습에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리하여 로마의 병졸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환호하면서 그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연극조의 희롱이 지금에 와서 무의식의 예언이 되어 전 인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 시험

최 제 현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곡 · 노래 :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사. · 노래 : 팀 라이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els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moves me He's a man, he's just a man And I've had so many men before In very many ways He's just one more Should I bring him down? Should I scream and shout?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eelings out?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Don't you think it's rather funny? I should be in this position I'm the one who's always been So calm, so cool	난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 엇을 해야 할지, 그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난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가 나를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남자예요, 그냥 남자예요 그리고 나는 전에 아주 많은 방법으로 아주 많은 남자를 가졌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 더일 뿐이에요 그를 끌어내려야 할까요? 소리를 지르고 외쳐볼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내 감정을 드러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상황은 뭐지요? 당신은 이런 것이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이래야 해요. 나는 사랑의 바보가 되지 않고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게
---	--

No lover's fool Running every show He scares me so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Yet, if he said he loved me I'd be lost, I'd be frightened I couldn't cope, just couldn't cope I'd turn my head, I'd back away I wouldn't want to know He scares me so I want him so I love him so	모든 것을 주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를 너무 두렵게 해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상황은 뭐지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자신을 잃고 두려워할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저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뒤돌아 물러 나올 거예요 나는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너무 두렵게 해요 나는 그를 너무 원해요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수록된 곡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고심을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고도 절절하게 표현한 명곡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1971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작곡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사는 팀 라이스가 맡았으며 이 두 사람이 다 이 뮤지컬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의 생애 중 마지막 7일을 다루며,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은 예수를 짝사랑하며 혼란에 빠진 막달레나 마리아의 노래로 이 뮤지컬의 흐름을 이 한 곡에서 모두 보여주

고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Everything's alright 등 좋은 음악들이 흥행을 이끌어 초연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연과 리바이벌을 거듭하며 뮤지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77년 처음으로 공연된 이후 수차례 공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간적 면모를 과장되게 묘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가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죽음으로 내모는 설정 등에 대해 바티칸은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이 뮤지컬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관람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제작자 측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한 노출을 수정하는 성의 표시를 하면서도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에게 그의 메시지를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작진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제작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은 작품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손자병법의 군형(軍形)편에는 장동졸고(將同卒苦)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수가 부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보이는 곳에서는 군사들과 허접 밥을 먹으며 함께 고생하나, 군사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몰래 장수상(왕이 장수에게 보낸 음식)을 먹는다면 리더십 손상과 신뢰 상실은 물론 장수와 군사가 한 몸처럼 되기 위해 그동안 애써 고생한 보람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특권은 없었고 평범한 인간보다 더 힘든 시험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서에서 예수의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광야에서의 시험이나, 마귀는 잠시 떠났다고 하여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서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디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시험의 많은 기록 중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신약성서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 자신으로부터 온 시험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또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영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마태(4:1-11), 마가(1:12-13), 누가(4:1-13)에 기록된 세 번의 시험은 자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는 “스쳐가는 잡념”은 무방비한 때에 우리의 뜻과 다르게 불쑥불쑥 찢러 옵니다.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생각에 민망하기도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어떤 때는 그 잡념이 짙은 유혹이 되기도 하고 타락으로 이끌기도 하는데 인간인 이상 이런 잡념을 뜻대로 통제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성서에서의 마귀는 “내 마음속의 마귀”이며 “못된 유혹”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1)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내가 40일이나 굶주렸고 목표했던 금식 기간도 끝났는데, 이제 내 능력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 누구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상에 나가는 동안에도 굳이 배를 고폴며 가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수능 끝나고 내 돈으로 빵 사 먹으러 나가는데 잘못된가요? 말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만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내 생각하시고 배고픔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김으로써 신체적 욕구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메시야로서 자세를 우선하고 실천합니다.

1-2) 이제 예수는 성령으로 거룩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사뿐히 뛰어내릴 능력도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 즉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리면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짧고 쉽게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 사명 완수에도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유혹에 빠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타락시키기 좋은 “경건함의 유혹”입니다.

자동차 살 때 시험 주행해 보는 것은 그 자동차에 대한 약간의 불신과 과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는 유혹에는 “만일이라는 의혹”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테스트도 해보고 동시에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을 생각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정리하십니다.

1-3) 무협 소설에 보면 기연을 얻은 주인공이 외딴곳에서 수련을 마치

고 세상으로 나와 그 넘치는 힘으로 예외 없이 군림천하(君臨天下)하는데, 예수께서도 40일간의 금식기도 이후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시니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세상에 큰 권력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스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지만,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께 세상의 권력은 한낱 먼지 같아 유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일축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신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 사회적 욕구의 세 가지 시험을 치렀고 마귀는 잠시 물러났다고 합니다만, 시험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십자가형 직전에 병사들이 진통제로 주는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도 메시아의 완성을 위하여 고통의 공포를 극복하신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른 죄수들처럼 이 진통제를 의례적으로 복용하셨다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휴~

○ 사람으로부터 온 시험

2-1) 종교 지도자와의 갈등과 이들로부터의 시험이 참 많았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일을 비판하여 안식일 훼손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막 3:1-6)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를 죄인의 범주에 넣으려 하였습니다. (마 9:11)

-제자들이 식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예수를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몰아갔습니다. (마 15:2)

이외에도 지도자들은 간음한 여자, 로마에 대한 세금 등 수많은 함정으로 시험하였습니다만, 이런 시험은 예수의 놀라운 지혜와 단호한 논리로 비교적 쉽게 극복하십니다.

2-2) 예수의 지지기반이었던 무리가 정치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 요구합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능력을 보고 예수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고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지만,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험은 이미 광야에서 치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따르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했고 또한 애써 모아 온 사람들에게 실망도 하고 그 노력의 결과에 낙담했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2-3)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자극하시어 십자가형을 의도적으로 자초한 측면이 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일은 사실,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눈감아 주고 공생해 온 종교 지도자들을 대중 앞에서 정면 비난한 것이며, 새로운 권위가 그들의 권위를 누른 것입니다.

이에 위협을 느끼고 화가 난 그들이 찾아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항의하였으나, 적당한 타협은 커녕 당당한 반격으로 그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또 한 번 무시하셨으며, 연이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선자라 비판하십니다.

당한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났을까요? 더구나 다 맞는 말씀만 하시니 더 화만 나지요.

이런 일들은 바보가 아니면 하지 않을 일이며,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아시는 예수께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하실 말씀을 하신 것은 수일 내 닥칠 고난에 대한 공포를 이겨 내셨음을 보여줍니다.

2-4)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애원과 회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붙잡으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16:21-23)" 하시며 인간적인 정보다는 메시아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 착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칭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을 보면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슬픔을 주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예수께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5)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

"예수님도 성적인 욕망이나 유혹에 시달리셨을까"라는 생각은 생각만으로도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사람이 겪는 성적인 욕망이 예수께 없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회피이며, 예수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단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특혜 없이 맨몸으로 받으셨기에 이 시험도 예외 없이 받으셨고 당당히 이겨 내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 뮤지컬의 여주인공처럼 혼자 사랑에 빠져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사랑 많고 사명에 헌신하는 독신남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마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양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기침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24시간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듯한 스캔달이 전혀 없던 것은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에서 묘사한 이성애는 허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약 1:13)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며, 사람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이 아닌(메시아의 완성을 위한) 시련이 맞겠습니다.

3-1) 고난과 죽음의 사명 앞에서의 망설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하시며 이 시련을 앞두고 흔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26:38)”라고 말씀하시며 힘든 과정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셨으나, 예수가 피땀을 흘리며 고민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남의 일처럼 쿵쿨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잠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 홀로 서야 할 예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일 이런 흔들림과 망설임도 없이 여유 있게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인간이 아니었거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기대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망설임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3-2)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의 이 절규에 마음 아프면서도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시지요?

33년 인생을 오로지 메시아의 삶 만을 사신 예수께서 왜 버려졌다고 생각하시게 되셨을까요?

셋의 자손 예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창 5:24)고 하며,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왕하 2:11)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시는 분이며 심지어 돌아가시기 약 열흘 전에는 기도중에 모습이 변모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현신하여 예수를 찾아 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고통도 잊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상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행복하게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는 불안과 자포자기 속에 혼자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는 낮은데 임하셨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끝까지 진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없었고 보통 사람이 혼자 죽음과 같이 예수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견디시려던 예수께서는 당황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아야 했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시련이 아니라 예수께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잃는 것에는 고통이 작습니다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을 끊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내 깨달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잠시의 의문 뒤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수하였음을 확신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인간 예수”로서의 마지막 시련이었으며 인간에게 끝까지 진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두 이겨 내셨음을 선언하신 혼자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련에서 인간에게 끝까지 진실하시기에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신성을 지닌 채 오셨다면, 인간에게 쉽게 하나님을 알리고 따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 주셨으며 인간으로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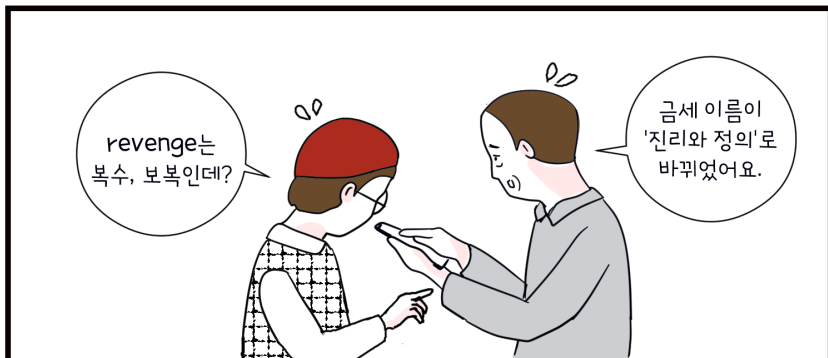
예수의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고통스러운 희생을 몸소 치르시며 인간과의 관계에 이토록 진실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거짓 없는 사랑의 끝, 그 진실하심의 끝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하신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소서.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피싱을 조심하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2-13절)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13호 2024년 6월

인	쇄	2024년	6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애 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